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홍 병 선*

주제분류 문화철학, 융합학

주요어 문화예술콘텐츠, 인문학적 접근, 경제적 가치, 상상력, 문화예술 활동, 고유가치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갖는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문화콘텐츠 관련 융합연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의 고유 가치와 경제적 가치와의 상관관계,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철학적 근거 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는 예술 소비자와의 관계로 인해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술 콘텐츠(작품) 창작이라는 고유 가치는 교환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상호 떼어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더군다나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콘텐츠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를 둘러싼 여러 파생시장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한 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또한 인간 공동체의 생활양식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 활동이 인간의 가치 지향적 행위라고 했을 때, 그 산물인 문화콘텐츠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이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상상력은 창조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같은 창의적 요소들과 함께 발휘된다. 상상력이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 중앙대학교

곧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문화예술콘텐츠 역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상상은 문화예술 창조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창조가 상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창의적 성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들어가는 말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위대한 혁신』라는 그의 저서에서¹⁾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최종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물건만을 생산·제작하던 과거 산업사회와는 다르게,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감성과 창의력,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급부상되고 있다. 이른바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대중에게 문화예술²⁾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문화예술콘텐츠³⁾ 산업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형의 자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GDP 성장 및 높아진 교육수준과 더불어 문화소비 구매욕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여행, 문화예술 행사, 문화콘텐츠 등 문화 활동과 관련 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기준 사이버쇼핑 상품거래

-
- 1) Peter F. Drucker, *Peter F. Drucker on Innovation*, 권영철, 전미옥 역,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2006 참조.
 - 2) 문화예술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학습, 사고, 행동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문화예술 개념을 전제로 할 때, 문화예술의 영역과 대상은 기존에 규정되었던 전통문화와 순수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과 대중예술, 관광, 여가활동, 패션, 영상, 애니메이션, 기술까지도 문화 및 예술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문학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 등 예술을 포함한 문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 3)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란 창의력, 상상력 등을 원천으로 하여 ‘문화적 요소’가 구체화되어 경제적 가치와 결합된 문화상품을 의미한다. 문화콘텐츠의 창작원천인 ‘문화적 요소’에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로 전환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및 온라인 기술 발전에 따라 음악, 게임, 영상, 정보서비스업 등과 같은 문화연관 사업체, 종사자, 매출에 있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누리기를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선포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조산업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산업의 핵심에는 바로 문화콘텐츠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콘텐츠가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성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창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융합연구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논의에서 주목하는 것도 문화예술 콘텐츠가 갖는 가치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화콘텐츠 관련 융합연구의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에 있다.

2. 문화예술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

문화콘텐츠는 한 문화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들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문화콘텐츠는 유용성이라는 목적에 따라 생산된 상품과는 달리 그 자체로 고유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량적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가 않다.⁴⁾ 물론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

4) 문화콘텐츠가 갖는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 가치(고부가가치 창출, 산업마케팅,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 창출, 관광의 활성화 등)와 사회적 가치(공동체의 자부심 증가, 시민 참여 확대, 공동체 형성,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등) 그리고 문화적 가치(문화 활동 참여, 문화조직 간의 협력 및 문화 창작 등)를 들 수 있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작품)는 소비자와 상관관계를 통해 그 정체성이 확보된다. 특히, 예술작품의 경우 예술가에 의해 탄생되기는 하지만, 감상자 즉 예술 소비자가 있기에 반드시 유통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 때문에 예술작품 창작이라는 고유 가치는 교환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상호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들의 물리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화폐유통 시장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예술작품(문화콘텐츠)이라는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⁵⁾

둘째로 예술작품은 단순히 원자재의 가치만으로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작품이 갖는 시대적 배경, 작가의 기량, 작가 및 작품이 미치는 영향, 작품의 감동에 따른 효과 등 어떤 비 물리적 힘을 근거로 하여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예술적으로 높게 평가 받는 작품일수록 그러한 영향이 강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감동을 얻기 위한 대중들의 노력(즉, 시간, 재화 등)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 단순히 원가 개념으로만 작품을 바라볼 경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콘텐츠(작품) 그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를 둘러싼 여러 파생시장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그 경제적 파급력은 단순한 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의 감상이나 공연 및 축제 등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일단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 때로는 장기적인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수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투자를 일일이 감안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로 곧장 이어지게 되는 것이

5) 홍병선(2014),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융합연구의 방향과 그 대안 모색”, 『교양교육 연구』 제8권 1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2장 참조.

다.⁶⁾

그래서 문화 상품의 가치는 투자대비 산출을 경제학적 산출의 범위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산출 대비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은 공산품의 기본적인 가치 증가율과는 단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문화콘텐츠가 개발될 경우 영화, 드라마, 음악, 출판, 게임, 공연 등의 파생 콘텐츠들을 접목시켜 활용되고 서로 다른 분야와 융합되면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게 된다. 이는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활동이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방식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

문화예술 활동은 본래 개개인의 자발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자율적인 창조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적인 활동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제약이 뒤따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말하자면, 개인의 자율적 활동으로서의 창조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기도 하겠지만, 경제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 점이 예술 창조활동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상업화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은 개개인에게 상호간 호환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창조, 전달, 교류 등이 쌓이고 거듭되어 사회 전체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가 축적되어 다양한 사회의 ‘내

6) 홍병선(2014), 앞의 책, 3장 참조.

용과 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그 사회를 사회답게 하는데 있어 가장 본질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의 내용과 질을 유지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했을 때,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 역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세대를 초월하여 역사, 전통을 만들어 가고 우리의 전 세대로부터 문화를 계승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은 세대로부터 역사로 연결하는 사회의 연대를 위한 기반이 된다. 또한 문화예술은 상호 이해와 소통의 원천이며, 사회 속에서 긴밀한 연대감을 만족시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으로 상호이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생산 활동에 속한다고 했을 때, 일련의 창작활동 과정은 창조적 생산 활동일 것이고 그것은 누적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우리의 상상력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 성과에 대한 재생산은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창조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은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곧 상상력에 의해 가능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상상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상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경험은 상상력을 촉발시키게 되고 결국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문화예술 창출의 원동력은 곧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사회적 순환구조의 형성은 물론 창조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⁷⁾

문화예술이 인간의 지성적, 심미적 산물의 총체라고 했을 때, 일련의 문화예술 활동은 상상력에 의한 산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

7) 홍병선(2014), “회화예술에서의 상상력과 그 교육적 적용을 위한 대안 모색”, 『교양교육 연구』 제8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장 참조.

공동체의 생활양식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가치 지향적 행위의 결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콘텐츠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성의 산물이나 실천행위, 예술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다시 말해 의미를 생산하거나 또는 의미생산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 실천행위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 모두는 창조의 산물로서 상상력을 전제로 한다. 이른바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출은 사회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 공동체의 소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가치 지향적 활동의 산물로서의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는 상상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의 인문학적 근거는 바로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4. 창의성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상상력

상상력이란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의 원천으로서의 상상력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표상(representation)을 형성하는 능력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려내는 능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근거가 되는 상상력은 그것이 발휘되기 이전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심상을 새로운 상황 속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상상력은 창조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같은 창의적 요소들과 함께 발휘된다. 상상의 본질적 의미가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작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의미에서 예술 창작의 경우 그것이 예술 일반의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상상은 주로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세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현실을 넘어선 상상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며,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곧 창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상상은 문화예술의 창조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⁸⁾

일반적으로 창의성(creation)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적합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새롭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및 그 바탕이 되는 인격적 특성으로 받아들인다.⁹⁾ 그래서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발견해내는 능력이자,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 새로운 대상이나 형태 등으로 구체화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하지만 창의성을 독창성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점에서 상상력뿐만 아니라 발명, 혁신, 통찰력, 창의적 사고, 새로움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해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어 오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상상력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인간이 갖는 고유한 능력인데 비해, 창의성은 인간이 갖는 고유한 능력이라기보

8) 안영길(1989),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252쪽.

9) 1950년대 미국심리학회에서 조이 길포드(Joy Paul Guilford)의 창의성에 관한 기초연설을 기점으로 심리학자들의 창의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창의적 개념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새로움’(독창성)과 ‘적절성’(가치)이다.

10) 문찬, 김미자, 신희경, 임남숙, 이상훈(2010), 『기초조형』, 안그라픽스, 16쪽.

다는 상상력이 발휘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상력에 따른 상상의 결과로 창의적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창의성은 상상력이라는 능력의 발휘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알렉스 오스본(Alex Faickney Osborn)에 따르면, 창의성은 곧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창의성을 ‘창의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¹¹⁾ 그래서 창의성, 상상력, 창의적인 상상력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개념들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창조는 어쨌든 상상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창조가 단순한 사고의 성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라기보다는 상상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창의적 성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¹²⁾

5. 나오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문화예술 활동이 적어도 인간의 창조적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 때, 그러한 창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는 우리의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인간 공동체의 생활양식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 활동은 인간의 가치 지향적 행위의 결과로서 그 산물인 문화예술 콘텐츠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11) 그 동안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서 상상력을 창의성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여겨 왔고, 연구 초기에는 창의성, 창의력 대신에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오스본 Osborn도 초기에는 창의성 보다는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 Torrance(1966), Williams(1980) 역시 상상력이 창의성의 본질적인 요소로 여겼다.

12) 이경숙(2012), “예술과 ‘상상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6쪽.

실현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로서, 이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 지향적 활동의 산물로서의 문화예술은 상상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인문학적 근거가 된다.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 활동이 생산 활동에 속한다고 했을 때, 일련의 창작활동 과정은 창조적 생산 활동일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사회·가치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인간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이는 곧 상상력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상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보다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경험은 상상력을 촉발시키게 되고 결국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문화예술 창조의 원천은 곧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상력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창조적 결과를 가능하게 한다.

참고문헌

- 강동수(2003), “초기 르네상스 철학의 상상력 이론”, 『철학연구』, 제87집, 대한철학회.
- 권영필 (2000), 『미적 상상력과 미술사학』, 문예출판사.
- 김건탁(2009), “재정분석을 통한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태(2012), “광주 미래융합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콘텐츠 감성생활서비스 산업육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한국영상미디어협회, 『예술과 미디어』 11권 1호.
- 박이문(1984), 『예술철학과 현대의 지성』, 문학과 지성사.
- 박장순(2006), 『문화콘텐츠학개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정교(2004), 『문화경제학』, 서울: 한울출판사.
- 안영길(1989). 『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 이경숙(2012), “예술과 ‘상상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천, 김요한(2006), 『문화콘텐츠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흥재(2005), 『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 임학순(2009), “우리나라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1998~2007)”, 『문화정책 논총』, 제21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순복(2001), “존 듀이의 철학에서 상상력과 예술의 문제”, 『미학』, 제30집.
- 정은경(2005), “음악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29집,
- 조부근(2009), 『글로벌시대의 문화산업과 문화교류』, 서울: 민속원.
- 조요한(2003), 『예술철학』, 미술문화.
- 지상 돈 외 2인 저, 황현탁 역(1999), 『문화경제학』, 나남.
- 진형준(2001), “상상력 연구 방법론 I: 상상력과 예술적 창의성”, 서울대 불

어문화권 연구소 발표문.

최연구(2009),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과학기술정책』 19권 2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병선(2007), “상상력의 철학적 근거: 흠의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24집.

_____(2009), “예술에서의 상상력, 그 철학적 토대”, 『철학논총』, 새한철학회.

_____(2014),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융합연구의 방향과 그 대안 모색”, 『교양교육 연구』 제8권 1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_____(2014), “회화예술에서의 상상력과 그 교육적 적용을 위한 대안 모색”, 『교양교육 연구』 제8권 4호, 한국 교양교육학회.

Peter F. Drucker, *Peter F. Drucker on Innovation*, 권영설, 전미옥 역(2006), 『위대한 혁신』, 한국경제신문.

William J. Baumol & William G. Bowen(1966), 임상오 역(2011), 『공연예술 경제적 딜레마』, 해남.

Humanities Reflection about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Industry

Hong, Byung-Sun (Chung-Ang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nsure the basis of cultural content-related fusion research through a humanities approach of value with the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To achieve this e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and economic value of cultur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discussion of such philosophical basis of cultural arts as creative activity.

Culture and arts-related content, art, distribution of problem is to be generated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consumer. Such circulation is immediately lead to economic value, intrinsic value is finally called art content creation is placed in a relationship can not be separated mutually and economic value of exchange. Further economic value of cultural content is not simply limited to the content (work) itself. If we consider some of the derivative market over this together, the economic ripple effect is made to have a value beyond our mere thought. In addition, when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which is one of the lifestyle of human society has a human value-conscious act, cultural content is the product is achieved through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rom imagination that in this based on our experience begin. Imagination is the basis that enables creative achievements. Imagination based on our experience, when it is assumed to form a new image, which is the basis for enabling immediate creation.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also in that it is a product of imagination, imagination will b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reative activities. When considering that it is more a result of creation has started imagined, depending on how to exert imagination, suggesting that creative outcomes sometimes several different.

Key words: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humanities approach, economic value, imaginatio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unique value

홍병선 e-mail: hbshong@cau.ac.kr

투 고 일	2015년 01월 21일
심 사 일	2015년 02월 04일
게재확정	2015년 02월 22일